

60번째, 농기구이야기

## 마을의 상징 ‘농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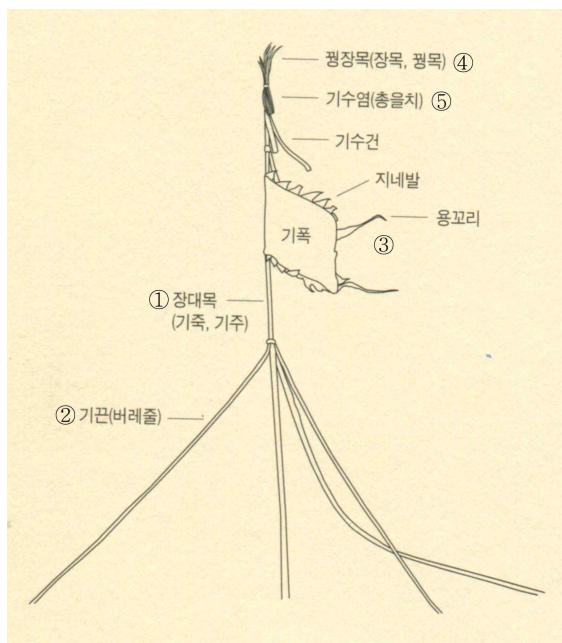
(강진 용소농기 © 농업박물관)

○ 편집 및 발행 : 농협중앙회 농업박물관      ○ 발행일 : 2013. 8.  
○ 본 자료의 저작권은 농업박물관에 있으며, 무단도용 및 전재를 불허합니다.

## 1. 농기란

농기는 마을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기(깃발)로, 지역에 따라 용당기·용덕기·덕석기·용술기·대기·서낭기·대장기·농상기 등으로 다양하게 불린다. 동제를 지내거나 두레를 할 때 항상 농기가 마을의 상징이 되었으며, 모든 행사가 농기를 중심으로 집결되고 마무리 될 만큼 농민들의 자긍심의 표시이기도 하였다.

## 2. 농기의 형태



### 그림 1. 농기의 세부명칭

① 장대목 : 기죽(旗竹) 혹은 기주(旗柱)라고도 하며 기폭을 묶는 지지대이다. 주로 대나무로 만들며 맨 위에는 평장목을 고정시키기 위해 대나무를 여러 겹으로 칼집을 내어 갈라 놓는다. 보통 길이가 7~8m가 넘는 대형으로 마을에서 가장 큰 집의 처마에 매달아서 보관한다.

② 기끈 : 버레줄이라고도 하며 장대목에 끈을 세 방향으로 묶여 있는 것으로 이동 시에나 기를 땅에 고정시킬 때 활용한다. 기놀이 할 때에 다른 곳에 걸리지 않도록 세 끈을 한꺼번에 손에 감아쥐고 사용하였다.

③ 기폭 : 연조, 지네발, 용꼬리로 구분된다. 광목과 같은 무명으로 만들기 때문에

천이 낡을 만큼 낡으면 다시 제작하는데, 이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연조이다.

－ 연조 : 최초의 제작 시기나 새로 제작한 시기, 제작자, 두레구성원, 마을이름 등을 기록하여, 기의 제작 내력과 역사를 나타내는 호적과 같은 역할을 한다. 기폭이 상하더라도 연조는 그대로 남겨둔 채 기폭만 새로 만들어 기의 나이를 이어간다. 이처럼 연조는 기의 나이를 나타내므로 각 마을의 기는 연조의 선후에 따라 형과 아우가 정해진다. 마을에 따라 연조에 쓰여 있는 좌상(座上:두레의 총책임자)이 살이 있는 동안 기를 다시 제작할 경우, 기존의 연조에 새로운 기폭만 만듦으로 연륜을 이어가도록 하며, 좌상이 작고했을 경우에는 제작 시점의 좌상 이름을 다시 명시해야하므로 연조를 다시 쓰기도 한다.

－ 지네발 : 기폭 둘레에 천을 세모난 모양으로 자르고 달아서 너풀거리도록 한 것이다. 보통 흑색, 적색, 황색, 청색 등 기폭과는 다른 색을 사용한다. 이 중 1m가 넘는 천을 길게 덧대는데 이것이 ‘용꼬리’이다.

④ 꿩장목 : 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장목, 꿩목이라고도 한다. 60~80cm의 길이로, 꿩의 깃털 25~30개를 모아 밑부분을 묶어 만든다. 기싸움을 할 때 꿩장목이 떨어지면 기가 부러진 것으로 인정하므로 매우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다.

⑤ 기수염 : 꿩장목 아래에 매다는 것으로 기가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게 하기도 하고 펠릭이는 모양새를 좋게 하기도 한다. 칩이나 사람의 머리카락을 사용하여 실처럼 늘어뜨렸다.

⑥ 기망 : 장대목의 가장 아래에는 기를 꽂아 이동하거나 기를 펼칠 때 지지대 역할을 하기 위해 기망을 끼워 사용하였다. 주로 짚으로 만들며, 장대목의 밑둥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작은 바구니 모양으로 만들고 양쪽 끝에 끈을 길게 달아 허리에 감을 수 있도록 한다.



사진 1. 기망

### 3. 여러 형태의 농기

농기에는 주로 의미 있는 글귀나 그림을 그려 풍년을 기원하기도 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기도 하였다. 주로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글귀를 많이 쓰고 있으나, 오래된 형태의 농기에는 ‘신농유업(神農遺業)’이나 ‘용(龍)’과 같은 글씨를 쓰기도 하고, 신농씨(神農氏)나 용 그림을 그리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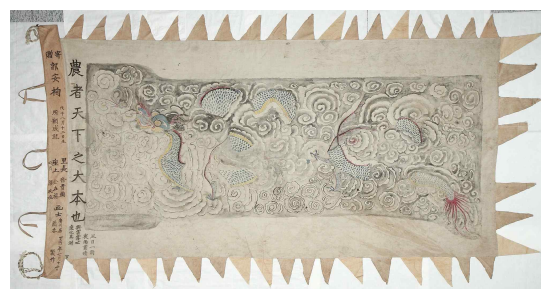
서산 덕지천농기



강진 용소농기



논산 주곡농기



김제 신평농기

사진 2. 여러 내용이 담긴 농기들(© 농업박물관 서울시문화재단)

여러 농기 중 ‘서산 덕지천농기’는 충남 서산시 덕지천동에서 두레를 할 때 사용한 농기이다. 가장자리는 옅은 청색 지네발로 통일하였으며, 흰색바탕에 구름 속을 날아가는 청룡을 그렸다. 농기에 용을 그리는 것은 물의 신인 동시에 비의 신으로, 비를 머금은 용이 땅에 비를 뿌리기 위해 깃대를 타고 땅을 내려오는 것을 상징한다. 농사를 지을 때 반드시 필요한 물을 간절히 원하는 농민들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의 우측에는 ‘천하대본(天下大本)’이라는 묵서와 함께 제작 시기를 나타내는 연조가 적혀있다. 연조는 ‘(大正五年)丙辰陰六月新備’으로, ‘대정오년음육월신비’라는 음으로 ‘대정오년’은 흰색 천으로 덧대어 그 위에 ‘병진년 음력 6월에 새로 제작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서, 1916년에 새롭게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진 2)

‘강진 용소농기’는 전남 강진군의 안지마을에서 두레를 할 때 사용한 농기로, 가장자리는 붉은색 지네발로 통일하였고, 흰색 바탕에 청룡을 탄 신농씨가 그려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에 그려진 용, 잉어, 거북은 모두 물과 관련된 상징물을 농기에 그려 한 해의 풍년과 마을이 평안을 기원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중앙에는 하늘을 나는 청룡이 있고, 청룡의 등에 신농씨로 보이는 인물이 살포를 들고 앉아 있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농협 농업박물관, 2009, 『농민의 자부심, 농기』